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50



Contents

※ 2026.09.30.(수) 기준(대상 기간 : 2026.09.23.~2026.09.29.)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평택시,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90.45% 달성(2026.09.29)	1
– 충남도의회, CDR 활용 탄소중립 2045 연구 착수(2026.09.28)	1
– 태백시, 탄소중립국 등 6국 체제로 조직 개편(2026.09.29)	2
– 용인특례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최종 실적 등록(2026.09.25)	2
– 구례군, 10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2026.09.29)	3
■ AI 분야	4
– AI·반도체 전력수요 급증, 탄소중립 병행 과제 부상(2026.09.26)	4
– 익산시, 자율주행·로봇·스마트농업 기업과 투자협약(2026.09.29)	5
–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AI 혁신 거점 조성 착수(2026.09.28)	5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6

■ 탄소중립 분야	6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기후과학원 역할 논의(2026.09.28)	6

- 성남산업진흥원, 기후테크 11개사 기후산업박람회 참가(2026.09.23) 7

■ AI 분야 7

- 금감원·금융권, AI 활용 금융민원 급증에 대응 부담(2026.09.27) 8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8

■ 탄소중립 분야 8

- 고려아연, 태양광 연 11GWh 20년 장기 공급계약(2026.09.29) 8

- 영천시새마을회, 공설시장서 장바구니 탄소중립 캠페인(2026.09.23) 9

■ AI 분야 10

- 삼성 6개사, 美 헬릭스에 1.36조 AI 인프라 투자(2026.09.29) 10

- LG, 중앙아시아·중동에 엑사원 수출 추진(2026.09.23) 10

- LG전자·SK엔무브, 차세대 냉매·액침냉각 공동개발(2026.09.24) 11

-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전력 패키지로 아세안 공략(2026.09.28) 12

- SK에코플랜트, 반도체·AI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2026.09.29) 12

- 삼척블루파워, AI 데이터센터 부지 매각 협약 체결(2026.09.23) 13

- 유엔총회 정상들 AI 통제 촉구, 트럼프는 전면 거부(2026.09.23) 14

-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석 맞아 AI 도슨트 등 체험 확대(2026.09.24) 14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평택시,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90.45% 달성(2026.09.29) - 29일 평택시에 따르면 최원용 평택시장이 전날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관련 국·소장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6년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열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이행현황과 연간 목표 달성가능성을 점검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2026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비 90.45%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 - 보고회에서는 2026년 추진실적과 부서별 목표 달성률을 분석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제약 요인을 살피는 한편 하반기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문별 보완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는 '시민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내걸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제로에너지 도시 확대, 저탄소 농축산 기반 조성, 폐기물 발생원천 감량, 산림·녹지 등 탄소흡수원 확대 사업을 추진 중 - 평택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2.9% 줄이는 것을 목표로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5개 부문 59개 세부 감축사업으로 구성되며, 최 시장은 분야별 점검체계를 보완해 예산편성과 사업 기획 단계부터 탄소중립 원칙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
	□ 충남도의회, CDR 활용 탄소중립 2045 연구 착수(2026.09.28) - 충남도의회 '충남도 탄소중립 2045 실현 방안 연구모임'이 28일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으며, 이 연구모임은 충남의 산업구조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자치법규 제·개정과 정책·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 - 연구모임은 기존 배출저감 정책만으로는 감축하기 어려운 잔류배출 문제에 주목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해 '이산화탄소 제거(CDR)'를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도 CDR 정책 발굴을 위한 국내외 현황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연구용역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수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연구결과를 토대로 CDR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남 CDR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입법과제도 발굴할 계획으로, 연구모임에는 김운섭(아산3)·정병인(천안8)·김종욱(논산2)·박유경(비례) 의원과 정현웅 기후환경정책과장, 순천향대학교 교수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충남농업기술원·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이 회원으로 참여
	□ 태백시, 탄소중립국 등 6국 체제로 조직 개편(2026.09.29) - 태백시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10월 1일자로 136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하고 기존 4국 22과 2직속 3사업소 체제를 6국 1실 29과 2직속 1사업소 체제로 개편하며, 고령화와 폐광 이후 지역 재편, 청정에너지 산업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할 조직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원도 683명에서 696명으로 13명 증원 - 정운섭 탄소중립국장이 이끄는 탄소중립국은 농업·산림·환경·탄소중립 기능을 묶어 폐광 이후 산업전환을 뒷받침하며 장성광업소 부지를 활용한 3540억원 규모 경제진흥개발사업의 청정메탄올 생산시설을 비롯해 풍력발전, 산림·목재클러스터 등 미래산업 육성을 맡고, 신설 복지국은 통합돌봄과·석탄산업유산과 등을 두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와 폐광지역 현안에 대응 - 시장 직속 시민소통실도 신설해 김공주 시민소통실장을 중심으로 시민소통팀과 뉴미디어팀을 두고 시민 의견 수렴과 시정 홍보, 온라인 소통을 담당하게 하며, 태백시는 이번 개편이 폐광 이후 산업전환과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 지역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확대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와 현안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용인특례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최종 실적 등록(2026.09.25) - 용인특례시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를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종 실적 등록을 진행하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참여 기간 동안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운전자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완주 참여자 대상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 시는 참여자가 등록 기간 동안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에 접속해 자동차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고 주행거리를 입력한 뒤 최종 확인·동의 절차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종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참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기한 내 등록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 - 최종 실적 등록 후 승인 문자를 받은 참여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참여 완주 기념 이벤트'가 진행돼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 1인당 5,000원 상당의 온누리 디지털상품권을 지급하고 상품권은 11월 중 개별 발송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 또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구례군, 10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개최(2026.09.2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시천체육공원과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흙의 울림, 구례에 물들다'를 슬로건으로 '2026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히며,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1만명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설정 - 행사장에는 구례 8개 읍·면의 토양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홍보관이 마련돼 토양 건강 검진과 유용미생물 등을 소개하고, 개막 첫날에는 8개 지역의 흙을 하나로 모으는 합토식과 씨앗 심기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행사 기간 내내 맨발 황톳길 걷기와 흙물감 놀이, 농부 체험 등 관람객이 참여하는 오감 만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구례 흙 한상' 미식회와 로컬 마켓에서는 건강한 흙에서 자란 지역 대표 먹거리와 농산물을 맛볼 수 있고 저녁에는 힐링 음악회와 지역 예술 공연, EDM 파티가 이어지며, 장길선 구례군수는 흙이 먹거리와 환경, 미래를 잇는 핵심 자원이라며 박람회와 구례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흙의 소중함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AI·반도체 전력수요 급증, 탄소중립 병행 과제 부상(2026.09.26) -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최대 관건으로 전력이 부상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되는 2040년까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면서 온실가스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당국이자 탄소 감축 책임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성장'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국면에 직면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위원회가 재전망한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58.4~165GW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추가 전력수요는 24.3~24.6GW, AI 데이터센터는 11.9GW에 달해 당초 전망 대비 각각 약 6배와 3배로 뛰었으며, 늘어난 수요만 설비용량 1.4GW급 대형원전 19기에 해당하고 용인 반도체 팹 10기에만 14.7GW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서남권 팹 4기(6.3GW)의 추가 수요는 지역 여유 발전력과 LNG,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으로 대응하는 반면 용인은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고 송전망 건설도 지연돼 산단 내 LNG·열병합발전소 건설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가 원전 역할 재검토 공론화에도 착수한 가운데 추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환경단체들은 데이터센터발 배출 증가를 우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익산시, 자율주행·로봇·스마트농업 기업과 투자협약(2026.09.29) - 전북 익산시가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정호 익산시장과 각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TYM ICT, 엑스엠, 대성농업기계, 팜큐베이터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농업 등 미래산업을 이끌 ICT 기업 유치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투자 확대, 지역 산업협력 연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TYM ICT와 엑스엠, 대성농업기계는 AI 디지털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익산에 새로운 사업 거점을 마련하고 팜큐베이터는 공유오피스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사업 기반을 확대하며, 각 기업은 농기계 텔레매틱스·자율주행 단말기(TYM ICT), 필드용 로봇·통합관제 시스템(엑스엠), 피복기·파종기 등 농업용 기계(대성농업기계), 스마트팜 온실 환경제어시스템(팜큐베이터) 기술을 보유 - 시는 AI 디지털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간 기술교류와 공동사업 발굴,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망 강화,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왕궁농공단지 일원 0.33㎢가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완전 무인 자율농작업과 다중관제 시스템 등 미래형 첨단 농업기술 실증을 추진
	□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AI 혁신 거점 조성 착수(2026.09.28) - 양산시(시장 나동연)가 부산대학교의 '서울대 10개 만들기(S-TEN) 프로젝트' 선정에 발맞춰 약 54만㎡ 규모의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동남권 산업·연구·AI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응에 본격 착수했으며,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도 진행 - 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 S-TEN 프로젝트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연계해 대학 중심의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연구·산업·창업·인재양성·의료·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아래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기업유치·산업혁신·AI·스마트도시·대학협력 등 9개 분야 부서가 참여하는 범부서 TF를 구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부산대의 전략산업 및 AI 관련 연구기능과 시의 기업·산업정책을 연계해 기업 공동연구, R&D, 창업 및 기업지원시설 유치 등 산학연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협력과 시민 체감형 사업도 함께 검토하며, 양산캠퍼스를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해 대규모 유희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기후과학원 역할 논의(2026.09.28)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8일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을 주제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연내 출범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 분야 '싱크탱크' 국립기후과학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 센터는 그동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생산·관리해 왔으나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확대 개편되면 부문별 연구기관들로 분산된 감축 관련 분석과 데이터 생산을 통합 관리·수행하게 되며, 첫 세션에서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와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 관계자가 화상으로 각국의 점검 체계를 소개하고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가 배출량 산정·감축 진단 지원 경험을 공유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기반 감축 이행 관리를,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정보센터장이 지역 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후위기 대응 데이터 기반시설 구축·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최민지 센터장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감축목표를 실제 감축으로 이어가려면 배출량의 과학적 전망·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
지방기관	□ 성남산업진흥원, 기후테크 11개사 기후산업박람회 참가(2026.09.23) - 성남산업진흥원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기후산업 국제박람회(WCE) 탄소중립 엑스포'에 성남시 통합관을 마련하고 관내 기후테크 기업 11개사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합관을 운영한 성남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통합관 형태로 참가해 지역 기후테크 산업과 기업을 한자리에서 홍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국제에너지기구(IEA), 부산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기후테크가 만드는 거대한 변화: 탈탄소 세상을 향한 도약'을 주제로 열렸으며, 성남시 통합관에는 클린테크·푸드테크·에코테크·카본테크·지오테크 등 5개 분야의 위에너지즈, 비엔씨알, 요즘사람, 타이가글로벌, 이노퀘스트, 오후두시랩, 에스코프 등 11개사가 참여 - 참가기업들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면서도 각기 다른 분야의 기술을 선보여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 에너지에 국한되지 않고 식품과 자원순환, 탄소관리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현장을 찾은 국내외 바이어·산업 관계자와 기술 교류 및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주력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금감원·금융권, AI 활용 금융민원 급증에 대응 부담(2026.09.27)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 민원 제기가 활발해지면서 AI에 물어본 내용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등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으며, AI 덕분에 소비자의 민원 제기가 쉬워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량이 폭증하는 등 분쟁의 갈등을 키우는 요인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 -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만85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9% 급증해 3만건에 육박했고,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해 연간 12만8419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올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역주행 양상 - 금융권은 AI에 민원 작성법을 의뢰하면 작성 예시와 증빙자료, 접수 방법, 관련법 해석까지 안내받을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 확산을 민원 급증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AI로 작성한 문서는 분량이 길어 워드파일로 첨부되는 경우가 많고 부정확한 법률 해석이나 인용이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공존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고려아연, 태양광 연 11GWh 20년 장기 공급계약(2026.09.29) -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와 강원·경기·경북 등의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연간 11GWh의 친환경에너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히며, 국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의 장기 확보를 발판으로 울산 온산제련소를 비롯한 국내외 생산거점의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친환경에너지 공급은 올해 12월부터 20년간 이뤄지고 공급가격은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돼 지속 상승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연간 승용차 2100대분인 4200t의 탄소배출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는 호주에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 고려아연은 2018년 호주에 124MW급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고 추가 전력구매계약으로 썬메탈제련소 사용전력의 약 50%를 친환경에너지로 충당하며 2024년 풍력발전소 맥킨타이어 지분 30%를 확보했고, 앞으로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호주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그린 암모니아로 전환해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구상
기타	□ 영천시새마을회, 공설시장서 장바구니 탄소중립 캠페인(2026.09.23) - 사)영천시새마을회가 지난 22일 영천공설시장 일원에서 새마을회 회장단과 지도자 협의회·부녀회 임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새마을 환경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번 캠페인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 - 회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상인들의 왕래가 많은 영천공설시장 곳곳을 돌며 '일회용품은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은 늘리는' 친환경 소비문화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고,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직접 나눠주며 비닐 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작은 선택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 - 영천시새마을회장은 탄소중립이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에서 출발한다며 나눠준 장바구니가 한 번의 캠페인 물품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새마을회는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환경정화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살리기 운동으로 시민 참여형 친환경 실천문화 확산에 주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삼성 6개사, 美 헬릭스에 1.36조 AI 인프라 투자(2026.09.29) -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삼성SDS·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 관계사 6곳이 미국 글로벌 투자회사 KKR이 설립한 AI 인프라 기업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 스트럭처'에 총 10억달러(약 1조3600억원)를 투자한다고 29일 밝혔으며, 삼성전자가 5억달러를, 삼성물산·삼성SDS 등 나머지 5개사가 5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분담 - 올해 6월 출범을 발표한 헬릭스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개발·운영부터 발전 설비와 송배전 인프라, 광통신망 및 네트워크까지 AI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는 기업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 전 최고경영자(CEO) 아담 셀립스키가 이끌고 있으며, 삼성 관계사들은 KKR과 엔비디아, 미국 전력회사 비스트라, 쿠웨이트투자청(KIA) 등과 함께 창립 투자자로 참여 - 삼성은 AI 산업의 경쟁축이 반도체에서 데이터센터와 전력 등 인프라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해 반도체·냉각·EPC·클라우드·배터리 역량을 결집하고, 부품 공급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아우르는 AI 인프라 생태계 구축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으로 AI 데이터센터가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와 서버인 AI, 코로케이션 등을 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흐름도 고려
	□ LG, 중앙아시아·중동에 엑사원 수출 추진(2026.09.23) - LG AI연구원이 이달 중순 카자흐스탄 정부와 AI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음 달 중동의 한 국부펀드와도 금융 특화 모델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등 중앙아시아와 중동 신흥국들과 본격적인 인공지능(AI) 모델 협력에 나섰으며, LG AI연구원이 비영어권 신흥국들과 AI 공동 개발이나 사업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 카자흐스탄의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자슬란 마디예프 부총리 겸 AI·디지털개발부 장관이 직접 LG AI연구원을 찾아 이홍락 원장과 만났으며, LG AI연구원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엑사원 기술로 현지 기업·대학과 카자흐어 모델을 공동 개발해 산업·에너지·의료·물류 분야에 응용하고, 상장사 8000여 개를 분석하는 '엑사원 BI'는 중동에서 실증(PoC)을 거쳐 정식으로 선보일 계획 - 신흥국들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법률·규제 등에 특화하고 해외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소버린(자립형) AI' 확보 수요가 크지만 자체 기술력과 데이터가 부족한 만큼, LG는 국산 모델 엑사원의 개발·사업화 노하우를 앞세워 미국·중국 빅테크 모델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무대에서 한국 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는 전략
	□ LG전자·SK엔무브, 차세대 냉매·액침냉각 공동개발(2026.09.24) - LG전자와 SK엔무브가 지난 21일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사장과 SK엔무브 김원기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전·상업·산업용 신규 냉매, 냉동기유 및 액침냉각 기술 공동 선행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냉매 규제 강화와 고효율 냉각 수요 확대에 대응해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을 위한 차세대 열관리 기술 협력에 착수 - 양사는 우선 지구온난화지수(GWP) 150 미만인면서 과불화화합물(PFAS)을 포함하지 않는 차세대 냉매를 공동 개발해 SK엔무브가 신규 냉매 후보를 개발하고 LG전자가 공조 제품과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압축기 등 주요 부품 간 마찰과 손상을 줄이는 핵심 소재인 냉동기유도 차세대 냉매 특성에 맞춰 함께 개발 -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발열 부품 사용이 늘면서 발열 관리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과 안정적 운영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기존 공랭식을 넘어 직접침냉각(DTC)·액침냉각 등 고효율 액체냉각 기술 확보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사는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액침냉각 협력도 확대할 방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LS일렉트릭, 데이터센터 전력 패키지로 아세안 공략(2026.09.28) - LS일렉트릭이 29~30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데이터센터월드 아시아 2026(DCWA 2026)'에 참가해 '준비된 전력 인프라,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주제로 90㎡ 규모 전시관을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용 초고압 변압기부터 직류(DC) 배전까지 아우르는 전력 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아세안 시장 공략에 돌입 - 전력 공급 단계의 초고압 변압기와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정지형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BESS), 모듈형 변전소부터 서버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저압 배전반(MDB)과 RPP, 부스웨이,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DCIM 소프트웨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패키지 솔루션'을 전면에 배치 - DC 배전 기술도 주요 전시 품목으로 제조 공장에 DC 배전망을 적용해 실제 운영하는 '친안 DC 팩토리'의 실증 사례와 운전 데이터를 공개하며, 회사는 아세안 데이터센터 시장의 누적 투자 규모가 2023년 약 102억달러에서 연평균 14.2% 성장해 2030년 30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
	□ SK에코플랜트, 반도체 · AI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2026.09.29) - SK에코플랜트가 말레이시아 센바이로 지분 매각을 끝으로 친환경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며 2021년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5년 만에 반도체 · 인공지능(AI)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으로 다시 탈바꿈하고, 사업 부문도 반도체 공장 · AI 데이터센터 건설, 반도체용 가스 · 소재, 반도체 재사용 · 재활용, 주택 · 건축 · 인프라 등 4개로 재편 - 29일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올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10조504억원, 영업이익 1조4650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2141억원) 대비 6.8배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조4357억원을 반도체 재사용 모듈 · 재활용 부문에서 거둬 영업이익의 98%가 반도체 부문에서 발생했고 메모리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함께 누린 결과라는 분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변화는 SK그룹 반도체 계열사 편입이 이끌어 2024년 11월 에센코어를 거느린 투자목적법인을, 지난해 12월 SK트리켄 · SK레조낙 ·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등을 현물 출자로 넘겨받았으며, 반대로 지난해 8월 환경 자회사 3곳을 KKR에 약 1조 7800억원에 매각한 데 이어 올해 태양광 자회사 탐선과 해상풍력 구조물 자회사 SK오션플랜트 지분도 넘기며 환경 · 에너지 자산을 정리
	□ 삼척블루파워, AI 데이터센터 부지 매각 협약 체결(2026.09.23) - 삼척블루파워가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과 AI 데이터센터 부지 매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은 삼척블루파워 발전소 부지 내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에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양측은 약 2만5000평 규모의 유휴부지를 데이터센터 부지로 검토 - 삼척블루파워는 2025년부터 발전소 내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추진해 2026년 3월 삼척시와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이 현장 방문과 실사를 거쳐 부지 활용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은 협약 이후 기업 실사와 기본설계, 전력계통영향평가 용역을 거쳐 전기사용신청을 진행하고 인근 추가부지 검토도 이어갈 예정 - 강규봉 삼척블루파워 대표는 이번 협약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에 연결하고 동해안 지역의 성장동력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 및 사업 파트너와 협력해 데이터센터 사업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데이터센터 유치와 함께 강원권 석탄화력발전사들의 송전제약 문제 해소를 위한 송전제약 전력구매계약 제도의 필요성도 대두
해외	□ 유엔총회 정상들 AI 통제 촉구, 트럼프는 전면 거부(2026.09.23) - 인공지능(AI) 위험 통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한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여러 국가 정상들이 AI 개발에 앞서 안전장치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AI를 통제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며 AI 통제 요구를 '세계주의적 음모'라고 일축하고 완강한 거부 입장을 천명 - 앞서 22명의 정상급 지도자는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통제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전 세계적인 감독 체제 구축을 제안했으며, 선언은 AI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최첨단 AI 모델 개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전과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AI 기업의 배포 전 독립적 위험 시험과 중대 안전사고 공유 등 투명성 강화를 요구 - 선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유럽 정상들이 주도하고 캐나다·호주 총리도 참여한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AI 문제는 기존 사법체계로 대응하면 된다고 미 정부 문서에 AI를 '슈퍼지능'으로 표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앤디 버넌 영국 총리는 국제사회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강조
기타	□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석 맞아 AI 도슨트 등 체험 확대(2026.09.24)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주제섬과 해양생태섬, 미래섬, 문화섬 등 4개 전시관의 체험 콘텐츠와 행사장 곳곳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4일 밝히며, AI 도슨트와 드론 조종부터 어린이 열차, 보물찾기, 빼어로 퍼포먼스, 소망 종이배까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대폭 보강 - 대표 콘텐츠는 주제섬에 설치된 'AI 다섬이 도슨트'로 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를 활용해 전시 내용을 설명하고 관람객이 박람회에 대해 질문하면 동작과 함께 답변하며 다국어 음성 대화 기능으로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을 지원하고, 미래섬에서는 키오스크 OX 퀴즈 10문항 중 7문항 이상을 맞히면 체험용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받아 드론 조종 게임에 참여하는 체험을 운영 - 해양생태섬에는 해양생물 모양 자석으로 여수 바닷속을 꾸미는 자석놀이와 실타래놀이가, 문화섬에는 소망을 적은 색종이를 종이배로 접어 전시하는 '소망 종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배' 공간이 새로 마련됐으며, 마스코트와 함께 행사장을 돌아보는 '다섬이 열차'도 24일 첫 운행에 들어가 가족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며 즐기도록 구성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